

# “文 대통령, GM대책 연석회의 열자”

## 특별대책 토론회서 정동영 의원 제안... 홍영표 의원 “차세대 자동차 볼트 생산 물량 군산공장에 가져와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해결하고 군산경제와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발전시킬 창의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특별대책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원내 5당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김재록 (우)인베스트스 글로벌 회장이 한국GM 사태 해결을 위한 'GM본사 전략적 지원 확대와 군산공장의 부평·창원공장 분할 전략'을 골자로 한 '그랜드 패키지'를 대표 발표했다.

김재록 회장은 “산업은행의 주도로 펀드를 조성하여 GM본사의 전략적 지원을 취득한 후, 글로벌 GM 경영전략에 개입하여 한국GM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산공장을 부평·창원 공장 인적 분할하여, 군산공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동차 중심의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부평·창원공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맞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분리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GM사태 당시 민간 구조조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GM 회생방안을 만들었다”며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GM과 군산공장 폐쇄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원내 5당 GM 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GM 정상화는 군산공장이 재가동 될 때 가능하지만, 소형차 중심 사업 모델로는 한국GM이 지속되기 어렵다”며 “GM이 올인하고 있는 차세대 자동차 볼트는 한국에서 개발한 스파크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볼트 생산 물량을 군산공장에 가져올 수 있도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홍영표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정동영, 홍영표, 정유섭, 지상욱, 노회찬 의원.

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산공장을 부평·창원공장과 분할해서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김재록 회장의 제안은 좋은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한국GM 국정 조사를 통해서 군산공장 폐쇄와 경영악화의 근본원인을 규명한 후, 조속한 신차 배정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GM은 노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굉장히 작은 문제이며, 핵심은 한국GM이 본사로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라며 “한국GM

사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의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위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GM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면 8조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군산공장을 전기차나 자율차 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글로벌GM 2대주주 참여 제안은 타당성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경호 한국GM 노조 지도교문은 “한국GM이 주장하는 것은 그림만 좋아 보일 뿐

이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며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실사를 먼저 실시한 후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주현 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의 넓은 땅과 군산공장을 활용하여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생산기지를 세워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시다”며 “현대나 기아 등이 군산공장에 대한 투자를 주저한다면, 수출은행을 통해서 군산공장을 미래차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킨 후 국내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 장학수 도의원, 정읍시장 예비후보 등록 위해 사퇴

장학수 도의원(민주당, 정읍1·사진)은 12일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는 6.13지방선거에 정읍시장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사퇴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지난 12년간 정읍시와 전라북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도민들께 고맙다고 말씀을 열어 “지지만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잡지는 시간까지 아끼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 의원은 지난 2017년에만 한국메니페스토 약속대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정대상, 한국 BBC 방송사 의정대상 등 3개의 굵직한 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당 도당, 6.13지선 예비후보자 2차 자격심사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등에 대한 제2차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0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를 열고 전체 103명(1차 정밀심사 대상 2명 포함)의 신청자 가운데 △적격 97명 △부적격 3명 △정밀심사(보류) 3명 등을 의결했다.

앞서 전북도당은 3월 6일부터 8일까지 광역의원, 단체장,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2차 공모를 받은 결과 광역의원 12명, 단체장 14명, 기초의원 75명 등 모두 101명이 신청을 마친 바 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당헌 당규의 규정에 따라 파렴치 및 민생범죄(사기, 공갈, 폭행)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일 경우 부적격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당은 3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3차 예비후보자 공모에 나서 추가 신청자와 정밀심사 대상자 3명의 재심사를 포함해 17일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이용호, 화재시 '불법 주차 강제이동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2일 긴급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이동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월 제천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 굴절사다리차가 불법 주차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00m를 우회해야 했다.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초기 진화가 지연되면서 인명피해가 확산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불법 주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가 차량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소방관련시설 주변 구역에 불법주·정차한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황 조정한다.

이용호 의원은 “불법 주차를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평상시 관리에 중점을 둔 법조항은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 루트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은 없는 상황이다”며 “불길은 커지는데 불법 주차 차량을 치우지 못해 절절해지는 것은 결국 무고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남북·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운명이 걸렸다”

## 文대통령 “지금 세계는 우리 역량 주목... 성공적 회담 되도록 국력 하나로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지금 세계는 우리의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느냐 여부에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1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권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

가 차원에서 결코 놓쳐선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로,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을 전 세계가 바라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온 국민이 한

마음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룩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며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만이 예측 불가한 외부적인 변수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며 “부디 여야, 보수와 진보,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 회담이 되도록 국력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 당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시스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